

“대졸 구직자 절반 이상, 사실상 ‘구직 단념’ 상태”

한경연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적극 구직’ 9.6%뿐... “지원해봤자 서류서 ‘꽂달’” 채용기회 줄자 구직 포기하고 취업 준비에 집중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이나 예비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구직 단념’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바늘구멍’ 취업 문 앞에 대졸 신규 구직자조차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2021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3%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거의 안 함’이 33.7%로 가장 높다. 이어 ‘의례적으로 하고 있음’(23.2%), ‘쉬고 있음’(8.4%) 등 순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의 응답률은 9.6%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

의 서류전형 합격률은 25.8%에 불과해 취업 문턱의 높이를 실감케 했다. 입사 지원을 평균 6.2회 했지만 합격 횟수는 평균 1.6회에 그쳤다는 얘기다. 대졸 청년층이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48.9%)가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다. 이어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해서’(10.7%),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7.6%), ‘적합한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부족해서’(4.8%) 등의 순이다. 응답률 9.6%가 나온 ‘기타’ 의견으로는 ‘진로 미확정’이 대부분이었다. 대졸 청년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채용 시장의 환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롭 힘들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58.6%가 올해가 작년보다 신규 채용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2.7%가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취업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 준비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채용 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 심화’(29.3%)와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23.9%) 등을 가장 많이 뽑았다. 하지만 ‘불안함, 우울함,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위축 기증’(18.2%), ‘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16.2%) 등의 응답률이 높아 구직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선호기업과 본인의 취업 전망 사이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다. 코로나19발 고용 한파 속에서 대졸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공기업(18.3%)이 좁혀, 대기업(17.9%)을 제쳤다. 또 정부·공무원(17.3%)도 상대적으로 높아, 중견기업(17.1%)에 앞섰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조사에서 대기업(23.0%), 공기업(19.8%), 중견기업(12.7%), 정



부(10.9%) 등 순으로 조사됐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중소기업(30.1%), 중견기업(20.9%), 정부·공무원(15.2%), 공기업(10.7%), 대기업(7.2%), 외국계 기업(4.4%) 등의 순이다. 중소기업의 취업 예상 비중이 2020년 25.0%에서 올해 30.1%로 5.1%p포인트 늘었고, 공기업은 같은 기간 16.0%에서 10.7%로 5.3%p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해 “청년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 속에서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낮게 진단하고 구직 자신감을 잃고 있다”면서 “이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

추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경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취업시장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좁아지는 취업 문 속에서 대다수의 청년이 자신감을 잃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기업규제 완화, 노동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농심 ‘새우깡’ 50주년 맞아 ‘블랙 새우’ 출시 “블랙 트러플에 새우 2배”

농심은 대표 과자 새우깡 출시 50주년을 맞아 고급 제품 ‘새우깡 블랙’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새우깡 블랙은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히는 이탈리아산 블랙 트러플로 풍미를 더했다. 트러플은 인공적으로 재배가 되지 않고 채취가 쉽지 않아 귀한 재료로 꼽힌다. 맛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새우 함량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려 고소함을 한층 살렸다. 농심은 “많은 소비자들이 새우깡을 즐겨찾는 이유로 ‘생새우를 사용해 차별화된 고소한 맛’을 꼽는 만큼, 새우 함량을 대폭 늘려 새우깡의 매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양도 새로워졌다. 새우깡 블랙은 기존 새우깡보다 두께는 얇은 반면, 너비는 1.5배 넓어 더욱 바삭해졌다. 포장재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R-PET)를 사용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검은색과 금색을 활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새우깡은 1971년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스낵이다. 당시 농심 연구원들이 1년간 밤을 새 밀가루 양만 4.5t, 트럭 80여대 분량을 쓴 고된 연구의 산물로 알려져 있다. 새우깡 한 봉지에는 5~7cm 크기 생새우 4~5마리가 들어간다. 새우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생새우를 갈아 넣는다. 가열된 소금의 열을 이용해 굵은 방식으로 만들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했다. 새우깡은 연 매출 900억원을 기록하며 스낵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50년간 누적 매출 2조1000억원, 판매량 83억봉이다. 이슬비 기자



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차이 있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동킥보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시험결과와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등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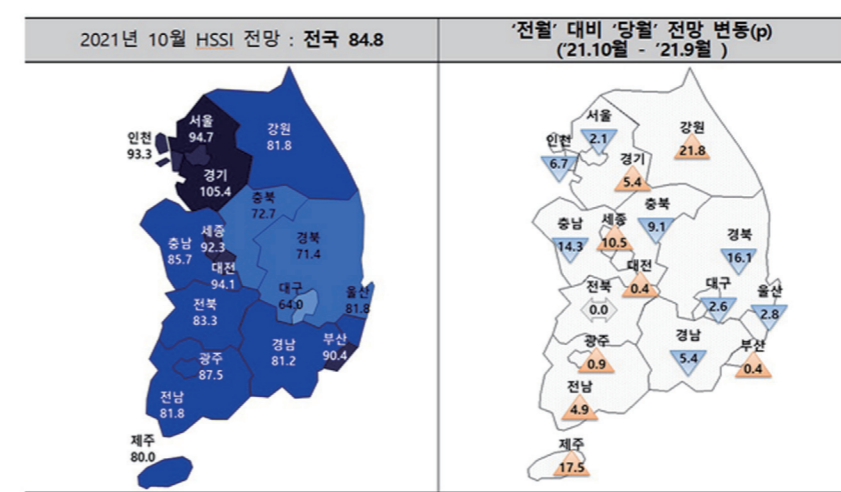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5만8천명 감소...제조업체 65% “쿼터 확대”

중기중앙회, 제조업체 792개사 대상 조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은 내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했다. 또 6곳 이상은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달 8~9일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가 응답했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중단된 이후 올해 10월 현재 전체 16개 송출국 중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근로자가 입국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10개월)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말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감소했다.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65.0%(515개사)의 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응답업체의 69.6%(551개사)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하고,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응답업체의 95.3%(755개사)는 내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했다.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로 가정했을 경우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로 회복 추세를 전망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다. 8월 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코로나19 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이달 분양시장 전망 ‘양호’

대구는 ‘악화’ 지속

10월 전국 분양시장 경기는 전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구의 경우 여전히 악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0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 따르면 전국 HS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84.8로 전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달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월대비 2.1p 하락한 94.7, 인천은 93.3, 경기도는 105.4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가까운 전망치를 유지하며 양호한 시장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부산(90.4, 0.4p ↑), 대전(94.1, 0.4p ↑), 세종(92.3, 10.5p ↑)을 제외하고 90선 미만의 전망치를 기록하며 기타지방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월대비 2.6p 하락한 64.0을 기록하며 전국 최저 수준의 전망치를 기록했다. 오유나 기자



그리스산 그릭요거트 홈런볼 속으로 해태제과 신제품

해태제과는 그리스 전통 건강식 그릭요거트를 담은 ‘홈런볼 그릭요거트’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리스에서 직접 공수한 그릭요거트로 산뜻한 요거트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수 과자 속을 상큼 달콤한 그릭요거트 크림으로 채웠다. 과자가 바삭 부셔서 향긋한 요거트 크림이 녹아 내린다. 해태제과는 그릭요거트는 그리스 현지에서 직접 공수했다. 첨가물 없이 저온 숙성 시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풍미가 깊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2배 이상 높은 원가 부담에도 그리스산(產) 오리지널 그릭요거트를 담은 것은 과자 하나도 건강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가치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것”이라며 “홈런볼 본연의 가볍고 기분 좋은 달콤함은 그대로, 여기에 건강까지 더한 새로운 홈런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